

<b>2026년 7월, 출범 확정</b> <b>제물포구·영종구</b> <b>서구·검단구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이제는 인천입니다 <b>2025 APEC INCHEON</b>
배포일자		2024년 5월 2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산업정책과	담당자	• 과학산업기술팀장 김영기 ☎440-4206 • 담당자 유선광 ☎440-4207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일 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인천시,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모빌리티 신(新) 기술전환 지원**  
 - 중소벤처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, 3년간 300억 집중 투입 -  
 - 47개 참여 기업 모집해 물류 및 자율주행 로봇, 모빌리티 소부장 산업분야 지원 -

인천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「레전드 50+」\*에 공모한 ‘인천 모빌리티 신(新) 기술전환 지원’ 사업이 최종 선정돼, 올해 4월부터 3년간(2024~2026)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3년간 총 300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.

\* 지역특화 프로젝트 하나로, 지역기업 지원으로 끝내어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7년까지 50% 이상 달성하겠다는 사업 [Region(지역) + End(끝) + 50+(50%이상)]

지역특화 프로젝트「레전드 50+」은,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, 바우처, 스마트공장, 창업중심대학 등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 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.

시는 ‘인천 모빌리티 신 기술전환 지원’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에 인천 소재 모빌리티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, 지난 2월에 최종 47개사를 선정했다.

이들 참여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▲혁신바우처 ▲수출바우처 ▲정책자금 ▲창업중심대학 ▲스마트공장 구축 등 5개 분야에 사업 신청할 수 있으며, 심사를 거쳐 총 3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“이번 사업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모빌리티의 신기술을 보유한 인천소재 기업이, 빠르게 성장할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물류, 로봇, 모빌리티 소부장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지역특화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말했다.